

제85호(2014. 3. 14.)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1
2. 주요 품목별 수입 변화와 국내시장 파급영향	8
3. 향후 전망과 과제	15

감 수: 박성재 선임연구위원 02-3299-4238 seongjae@krei.re.kr
내용 문의: 문한필 부연구위원 02-3299-4259 hanpil@krei.re.kr
자료 문의: 원동환 전문원 02-3299-4274 wondh@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 한·미 FTA 이행 2년차('13.3~'14.2)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11.3~'12.2)보다 20.2% 감소했으나(75.1억 달러 → 59.9), 수출액은 21.4% 증가(4.4억 달러 → 5.3)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감소는 북미대륙의 가뭄으로 인한 미국의 옥수수 생산과 수출 감소에 따른 EU, 브라질 등 수입선 전환에 기인
 - 곡물을 제외한 나머지 농축산물 수입은 FTA 이행 2년차에 발효 전보다 증가(42.8억 달러 → 45.3, 5.9%↑)
 -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담배류(권련), 기타음료, 라면, 비스킷, 빵, 고추장 등 과일·채소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증가
- FTA 이행 2년차 대미 농축산물 신규 교역품목 수는 소폭 증가했으며, 2013년 FTA 수입활용도(74%)와 수출활용도(46%)는 전년보다 각각 24%p, 11%p 상승
- FTA 이행 초기 관세인하 폭이 컸던 오렌지, 체리, 석류, 포도 등 미국산 신선과일의 이행 2년차 수입액이 발효 전보다 증가(38.5%), 국내시장점유율도 상승
 - 미국산 신선과일 수입이 집중된 봄·여름철에 미국산의 국내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전 6.0%에서 FTA 이행 2년차에 7.1%로 상승
 - 미국산 신선과일 수입증가는 국내 소비패턴과 생산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침
-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12.0% 감소했으며, 국내 공급증가(쇠고기, 돼지고기)와 수입전환효과(닭고기)로 미국산 육류의 국내시장점유율도 하락(10.4% → 7.2)
 - 쇠고기는 미국산의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량 감소, 수입비중도 감소(37.3% → 33.7)
 - 돼지고기는 국내 생산량 증가로 수입량 감소, 수입비중은 증가(31.4% → 34.7)
 - 닭고기는 가격경쟁력이 높은 브라질산 수입증가로 미국산 수입비중 감소(66.1% → 35.8)
 - 유제품은 미국산 TRQ 증량 등으로 수입액 증가, 수입비중도 증가(23.7% → 33.3)
- 한·미 FTA 이행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아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양국시장의 단기적 여건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아 전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은 감소함
 - 그러나 향후 대내외 여건이 안정화되면, FTA 연차별 관세인하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농축산물시장에 미칠 영향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 농축산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현행 국내보완대책의 지속적인 수정·보완 및 시장차별화 촉진, 식품안전성 강화, 수출지원체계 구축과 수출활용도 제고 등이 필요

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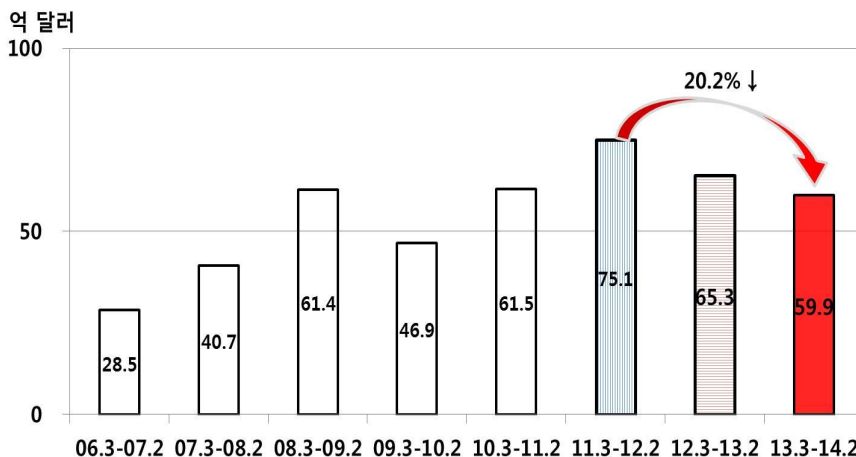
1.1.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농축산물 수입도 2년 연속 감소

- 한·미 FTA 이행 2년차(' 13.3~ ' 14.2) 미국산 농축산물²⁾ 수입은 발효 전보다 20.2% 감소했고, 이행 첫째(' 11.3~ ' 12.2)보다는 8.2% 감소
 - 75.1억 달러(발효 전) → 65.3(이행 1년) → 59.9(이행 2년)
- 이행 연차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규모는 감소 추세로 전체 농축산물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³⁾도 2011년 25.9%에서 2013년 19.6%로 감소
 - 미국산 수입비중: 25.9%(' 11년) → 22.4(' 12년) → 19.6(' 13년)

“
 한·미 FTA 이행 2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보다
 20.2% 감소
 ”

그림 1.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림수산물유통공사

- 1) 본고의 농축산물은 농산물, 축산물 그리고 임산물을 모두 포함하며, 교역통계는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해 각 연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013년 AG코드(2,208개 HS코드) 기준으로 집계하였음. 또한 한·미 FTA 발효 전은 FTA 발효 전 1년(' 11.3~ ' 12.2)의 기간을 의미함
- 2) 본고에서 후술하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축산물'을 의미
- 3) 전체 농축산물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
기상이변으로 인한
미국 내 옥수수 생산량
감소와 수출량 급감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감소 원인
”

□ 한·미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북미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옥수수 작황 부진이 미국산 곡물 수입 감소를 초래

- 2012년 북미대륙의 기상이변(가뭄)에 따라 미국 내 옥수수 생산량은 평년 대비 14.5%, 전년 대비 12.8%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출량은 평년 대비 61.6%, 전년 대비 52.4% 급감
 - 미국 옥수수 생산량: 3억 1천만 톤('11/'12) → 2억 7천만 톤('12/'13)
 - 미국 옥수수 수출량: 3,843만 톤('11/'12) → 1,823만 톤('12/'13)
- 2013년은 미국산 옥수수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GMO 논란으로 수입선이 EU, 브라질 등으로 전환되어 미국산 수입 감소
- 이에 따라 FTA 이행 2년차의 미국산 곡물 수입은 발효 전 대비 54.7%, 1년차 대비 33.3% 감소⁴⁾했으며, 기존에 교역규모가 가장 컸던 옥수수의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89%, 1년차 대비 65.2% 감소⁵⁾
 - 미국산 곡물 수입: 32.3억 달러(발효 전) → 21.9(이행 1년) → 14.6(2년)
 - 미국산 옥수수 수입: 19.4억 달러(발효 전) → 6.1(이행 1년) → 2.1(2년)

표 1. 미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 %

구분	발효 전 (11.3~12.2) (A)	발효 후 이행		증감율	
		1년차 (12.3~13.2) (B)	2년차 (13.3~14.2) (C)	이행 2년차/ 발효 전 (C/A)	이행 2년차/ 이행 1년차 (C/B)
전체 합계	7,507	6,527	5,989	-20.2	-8.2
농산물	5,149	4,276	3,654	-29.0	-14.5
- 곡물	3,231	2,192	1,462	-54.7	-33.3
- 과일·채소	454	596	614	35.2	3.1
- 가공식품	1,463	1,488	1,577	7.8	6.0
축산물	1,709	1,428	1,504	-12.0	5.4
임산물	649	823	831	28.0	1.0

주: 곡물은 곡류, 기타곡실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4) 그 결과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발효 전 43.0%에서 이행 1년 33.6%, 이행 2년 24.4%로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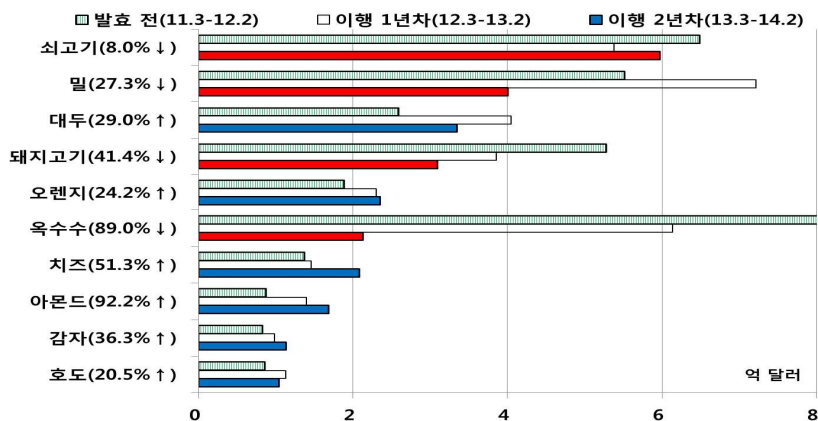
5)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되는 기타옥수수의 관세는 328%의 기준관세가 7년 동안 균등철폐되며, 셰이프가드내에서 무관세 쿼터가 주어짐. 한·미 FTA 이행 2년차에 3,994톤 이하는 무관세, 6,390톤 이하는 40%, 그 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는 572%의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2013년 기타옥수수 수입량(8,636톤)의 74%는 대부분 낮은 관세로 수입되었음. 한편, 미국산 옥수수의 생산량 감소는 수출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이 기간 우리나라의 수입은 브라질산 및 EU산으로 대체되었음. 이에 따라 국내 옥수수 전체 수입(금액)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감하였음: 77.1%('11) → 35.6('12) → 2.5('13)

□ 곡물과 축산물 수입은 감소, 과일과 가공식품 수입은 증가

- 곡물을 제외한 나머지 농축산물 수입은 FTA 이행 2년차에 발효 전보다 5.9% 증가(1년차보다 4.4%↑)
 - 이행 초기 관세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큰 오렌지, 체리, 포도, 레몬 등 미국산 과일·채소 수입은 35.2% 증가
 - 가공식품과 임산물 수입액은 각각 7.8%, 28.0% 증가⁶⁾
 - 반면, 미국의 쇠고기 생산 감소, 닭고기 수입전환, 국내 육류 공급 증가 등으로 미국산 축산물 수입은 12.0% 감소
- 품목별로 FTA 발효 전보다 이행 2년차에 수입이 크게 증가한 농축산물은 아몬드, 대두, 치즈, 오렌지, 체리, 감자, 호두 등
 - 대두 등은 주로 사료·가공용으로 이용되며, UR협상 결과에 따라 이미 낮은 세율이나 국내 수요를 고려한 TRQ가 적용
 - 계절관세와 TRQ가 적용되는 오렌지와 칩용감자는 국산이 출하되지 않는 시기의 수입수요가 확대
 - 체리, 석류, 아몬드, 호두, 패스트푸드용 감자, 치즈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한 품목
 - 반면, 국내 시장에서 경합이 치열하거나 수입선이 전환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FTA 발효 이후 오히려 수입 감소

“
곡물을 제외한
일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증가
”

그림 2. 미국산 주요 농축산물 수입 변화⁷⁾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6) 가공식품은 혼합조제식료품(28.0%), 사료용근채류(26.4%), 배합사료(69.2%), 에틸알코올(208.8%), 임산물은 판지(451.4%), 아몬드(92.2%), 호두(20.5%), 기타임산물(82.9%) 등을 중심으로 수입액이 증가했음

7) FTA 이행 전·후 상위 36개 품목별 수입액과 수입량 변화는 <부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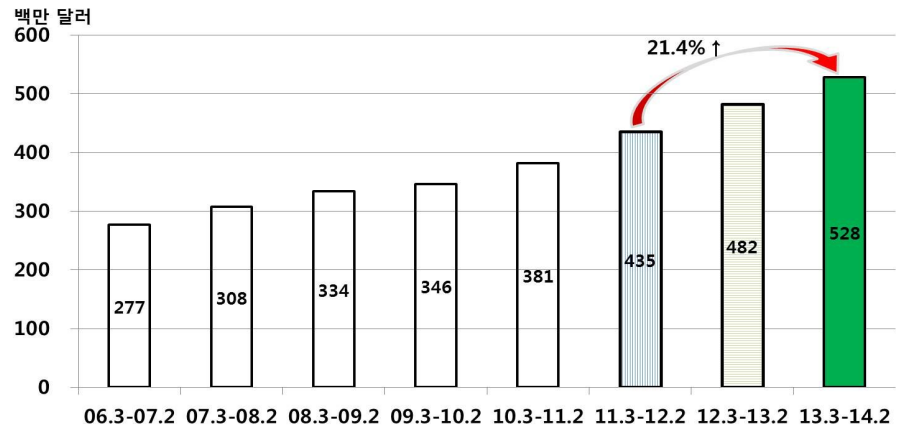
1.2. 대미 농축산물 수출

□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2년 연속 증가

- 한·미 FTA 이행 2년차(' 13.3~ ' 14.2)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발효 전보다 21.4% 증가했고 이행 1년차보다는 9.5% 증가
 - 4.4억 달러(발효 전) → 4.8(이행 1년) → 5.3(이행 2년)
-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7.6%에서 2013년 8.8%로 증가
 - 대미 수출비중: 7.6%(' 11년) → 8.2(' 12년) → 8.8(' 13년)

“
한·미 FTA 이행 2년차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발효 전보다
21.4% 증가
”

그림 3. 대미 농축산물 수출 추이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림수산물유통공사

- 부류별로 보면, FTA 이행 2년차에 미국으로의 가공식품 수출규모는 발효 전보다 15.2% 증가했고 과일·채소류도 13.0% 증가
 - 가공식품 수출: 3.4억 달러(발효 전) → 3.6(이행 1년) → 3.9(이행 2년)
 - 과일·채소류 수출: 64백만 달러(발효 전) → 70(이행 1년) → 72(이행 2년)
 - 대미 수출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축산물과 임산물도 발효 전 대비 각각 113.2%, 131.3%의 수출증가율을 기록

표 2. 농축산물 부류별 대미 수출 변화

단위: 백만 \$, %

구분	발효 전 (11.3~12.2) (A)	발효 후 이행		증감율	
		1년차 (12.3~13.2) (B)	2년차 (13.3~14.2) (C)	이행 2년차/ 발효 전 (C/A)	이행 2년차/ 이행 1년차 (C/B)
농산물	408	437	469	14.8	7.3
- 곡물	9	9	10	12.9	4.9
- 과일·채소	64	70	72	13.0	3.6
- 가공식품	336	358	387	15.2	8.1
축산물	16	29	34	113.2	18.9
임산물	11	17	25	131.3	51.0
전체 합계	435	482	528	21.4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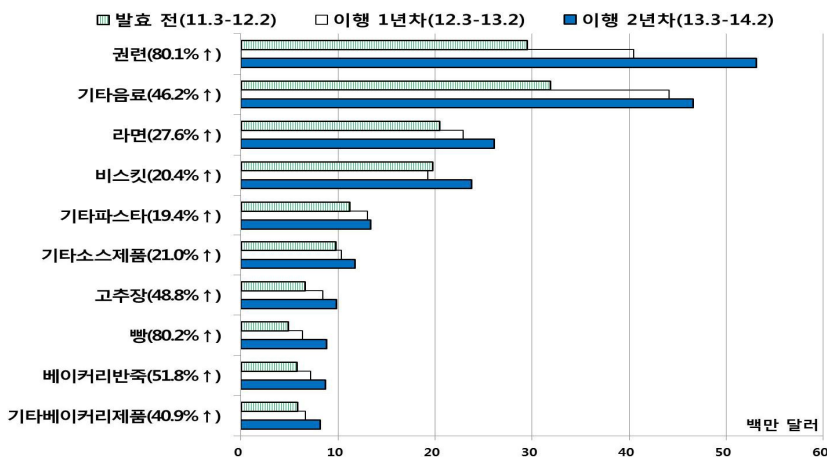
주: 곡물은 곡류, 기타곡실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 대미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담배류(권련), 기타음료, 라면, 비스킷, 빵, 고추장 등
 - 이들 품목은 대부분 가공식품으로 FTA 발효 전부터 대미 주력 수출품목이었으며, 발효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반면, FTA 발효 후 꿀, 홍삼, 난초, 호두, 사과, 무 등의 신선 농식품 수출액은 소폭 감소

“
대미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담배류,
기타음료, 라면, 비스킷,
빵, 고추장 등
”

그림 4. 주요 농축산물의 대미 수출 변화⁸⁾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8) FTA 이행 전·후 상위 36개 품목별 수출액과 수출량 변화는 <부표 2> 참조

“
한·미 FTA 이행으로
기존 농축산물의
수입은 감소, 수출은
증가,
신규품목 수는 수출·입
모두 소폭 증가
”

1.3. 대미 농축산물 교역 집약도·다양도⁹⁾

□ 종전부터 수입하던 품목의 수입규모는 크게 감소한 반면, 수입 품목의 개수는 소폭 증가

- FTA 발효 전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던 403개 품목의 수입액은 FTA 이행 2년차에 20.4% 감소(옥수수 수입 급감에 기인)했으며, 신규로 43개 품목(15백만 달러 수준)을 수입
 - 기존 수입품목: 75.1억 달러(발효 전) → 59.7(이행 2년차), 20.4%↓
 - 신규 수입품목은 타피오카, 팥, 크랜베리, 장미, 생사(잠사류), 팜 왁스, 대추, 악어원피, 종오리 등

표 3.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집약도·다양도 변화

단위: 개, 백만 \$

구분	수 입						수 출					
	집약도(기존품목)			다양도(신규품목)			집약도(기존품목)			다양도(신규품목)		
	품목 수	금액		품목 수	금액		품목 수	금액		품목 수	금액	
		발효 전	이행 2년차		발효 전	이행 2년차		발효 전	이행 2년차		발효 전	이행 2년차
곡물	55	3,231	1,458	7	0	4	25	8.6	8.9	8	0	0.8
과일·채소	54	454	606	9	0	8	47	64	72	14	0	0.2
가공식품	168	1,462	1,577	9	0	0.1	132	332	382	20	0	0.3
축산	62	1,709	1,502	10	0	2	24	19	37	4	0	0.9
임산	64	649	831	8	0	0.2	43	11	25	9	0	0.3
계	403	7,507	5,974	43	0	15	271	435	526	55	0	2

주1) 교역 다양도 및 집약도 변화는 실험품목(AG-code) 기준으로 제시
 주2) 곡물은 곡류, 기타곡실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제,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제,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제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기존 수출품목의 수출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소규모 신규품목의 미국시장 진출도 활발

- FTA 발효 전 미국에 수출하던 271개 품목의 수출액은 FTA 이행 2년차에 20.9% 증가했으며, 신규로 수출된 품목은 55개(2백만 달러)
 - 기존 수출품목: 4.4억 달러(발효 전) → 5.3(이행 2년차), 20.9%↑
 - 신규품목은 양송이, 파, 고추냉이, 알로에엑즙, 수삼, 동백유, 더덕 등

9) 본고에서 집약도는 '기존 교역품목의 교역규모 확대 여부' 를, 교역 다양도는 '신규 교역품목의 출현 정도' 를 의미함

1.4.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FTA 수출·입 활용도¹⁰⁾

□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활용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74%로 상승

- 2013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축산물 중에서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53.5억 달러이며, 그 중 FTA 활용 수입액은 39.5억 달러
 - 미국산 수입 상위 35개 품목 중 80% 이상의 FTA 수입활용도를 기록한 품목은 2012년에 8개였으나, 2013년은 22개로 증가
 - 수입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 중 2013년에 FTA 수입활용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쇠고기, 밀, 돼지고기, 치즈, 아몬드, 호두임

□ 대미 수출 농축산물의 FTA 활용도는 2012년 35%에서 2013년 46%로 상승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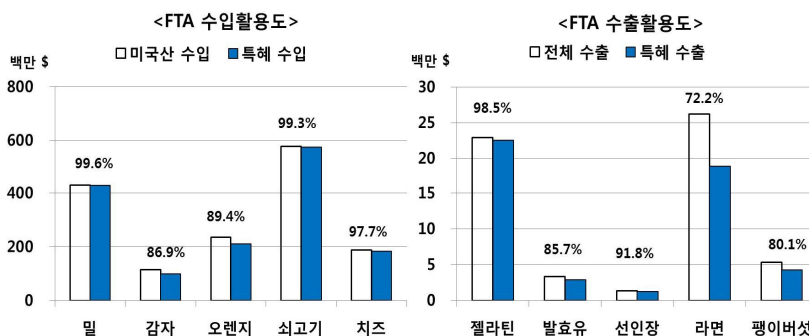
- 2013년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 중에서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은 5.2억 달러이며, 그 중 FTA 활용 수출액은 2.4억 달러
 - 대미 수출 상위 35개 품목 중 70% 이상의 FTA 수출활용도를 기록한 품목은 2012년에 3개였으나, 2013년은 7개로 증가
 - 수출규모가 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2013년에 FTA 수출활용도가 70% 이상인 품목은 라면, 젤라틴, 기타소스제품, 곡류제조품임

“

2013년 한·미 FTA 수입활용도는 74%로 전년보다 24%p 상승, 수출활용도는 46%로 전년보다 11%p 상승

”

그림 5. 2013년 주요 농축산물 한·미 FTA 활용도



10) FTA 수출·입 활용도는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FTA 대상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품목별 세부 내용은 <부표 1>과 <부표 2>를 참조

11) 미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에서 FTA 수입활용도가 수출활용도보다 높은 이유는, 미국산 농축산물이 FTA로 인한 관세혜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가공무역 위주의 국산 수출농식품의 역외 원료 비중이 높기 때문임. 또한 국내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원산지증명 등 통관과정에서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

2. 주요 품목별 수입 변화와 국내시장 파급영향

2.1. 미국산 과일 수입 증가와 파급효과

□ 한·미 FTA 이행으로 미국산 신선과일 수입 증가

- 이행 초기 관세인하 폭이 컸던 오렌지(50% → 25), 체리(24% → 0), 포도(45% → 18) 수입액은 FTA 이행 2년차에 발효 전보다 각각 7.7%, 92.4%, 93.0% 증가
 - 신선 오렌지: 1.7억 달러(발효 전) → 1.9(이행 2년차)
 - 신선 체리: 0.5억 달러(발효 전) → 0.9(이행 2년차)
 - 신선 포도: 1,815만 달러(발효 전) → 3,502(이행 2년차)
- 국산 과일·과채류로 대체할 만한 품목이 없는 레몬, 석류, 자몽도 관세 인하와 더불어 국내 수요 확대로 FTA 발효 후 수입 증가 추세
 -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기호식품으로 지명도가 높아진 석류와 레몬의 수입액은 발효 전보다 각각 59.8%, 151.0% 증가

“
FTA 이행 초기
관세인하 폭이 컸던
오렌지, 체리, 포도 등
신선과일
수입 증가
”

표 4.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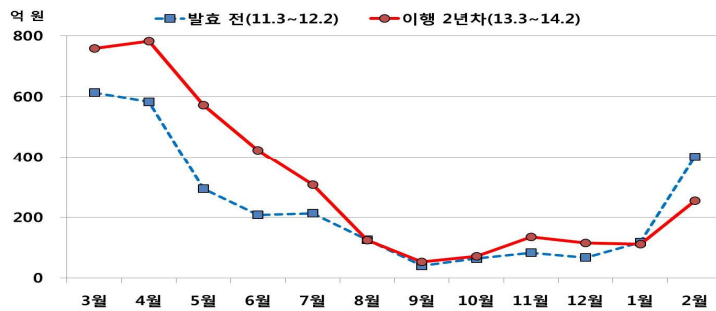
단위: 백만 \$, %

구분	발효 전 (11.3~12.2) (A)	발효 후 이행		증감율	
		1년차 (12.3~13.2) (B)	2년차 (13.3~14.2) (C)	이행 2년차/ 발효 전 (C/A)	이행 2년차/ 이행 1년차 (C/B)
오렌지	173.5	195.6	186.9	7.7	-4.4
체리	45.5	80.9	87.51	92.4	8.1
포도	18.2	27.8	35.0	93.0	25.8
석류	15.1	22.9	24.2	59.8	5.5
레몬	9.5	15.8	23.8	151.0	50.6
자몽	11.0	12.1	12.4	12.6	2.8
계	272.8	355.1	369.8	35.6	4.1

주: 포도는 건포도를 포함하며, 석류는 기타과실 중 HS0810.90.9000기준임.
기타 미국산 신선과일로는 크랜베리, 애버카도우, 메론 등이 있으나 수입규모는 미미함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림수산식품유통공사

그림 6. 미국산 과일 월별 수입동향



자료: GTIS-GTA

□ 미국산 신선과일 수입은 봄·여름철에 집중되면서 이 시기 미국산의 국내시장점유율도 상승

- 신선과일 전체 수입액 중 미국산 비중은 2011년 32.2%에서 2013년 36.4%로 증가
 - 미국산 오렌지와 체리는 각각 12~5월과 5~8월에 수입됨으로써 FTA 발효 후 과일 수입 증가를 주도
 - ※ 오렌지 수입 증가로 인해 봄철 신선과일 수입 중 미국산 비중은 40.5%에서 44.2%로 증가
 - ※ 미국산 체리, 레몬 등 여름철 수입비중도 29.1%에서 36.7%로 증가
- FTA 체결 후 봄(3~5월)과 여름(6~8월)철 미국산 신선과일의 국내시장점유율은 각각 1.2%p, 1%p 상승
 - 미국산 과일의 봄철 국내시장점유율: 7.9%(' 11) → 9.1(' 13)
 - 미국산 과일의 여름철 국내시장점유율: 3.6%(' 11) → 4.6(' 13)

“
미국산 신선과일의
수입비중은 증가,
그러나 국산 생산 및
수요증가로 미국산의
국내시장점유율은 정체
”

표 5. 미국산 신선과일 소비 비중 및 국내시장점유율 변화

구분	전체 과일 공급액(10억 원)						전체 수입액 대비 미국산 비중(%)		미국산의 국내 시장점유율(%)	
	수입액				국내 생산액		2011년	2013년	2011년	2013년
	2011년	2013년	2011년	2013년	2011년	2013년				
봄	149	211	369	478	1,530	1,834	40.5	44.2	7.9	9.1
여름	55	86	188	233	1,334	1,618	29.1	36.7	3.6	4.6
가을	19	26	138	141	1,286	1,940	13.6	18.4	1.3	1.2
겨울	45	47	135	165	1,489	2,437	33.1	28.5	2.8	1.8
전체	267	370	830	1,018	5,640	7,829	32.2	36.4	4.1	4.2

주 1) 수입 과일 소비액은 품목/월별 수입액×월별 환율을 적용한 것임

주 2) 국산 과일(사과 등 12개 품목) 월별 소비액은 품목/연도별 생산액×가락시장 품목/월별 출하비중을 적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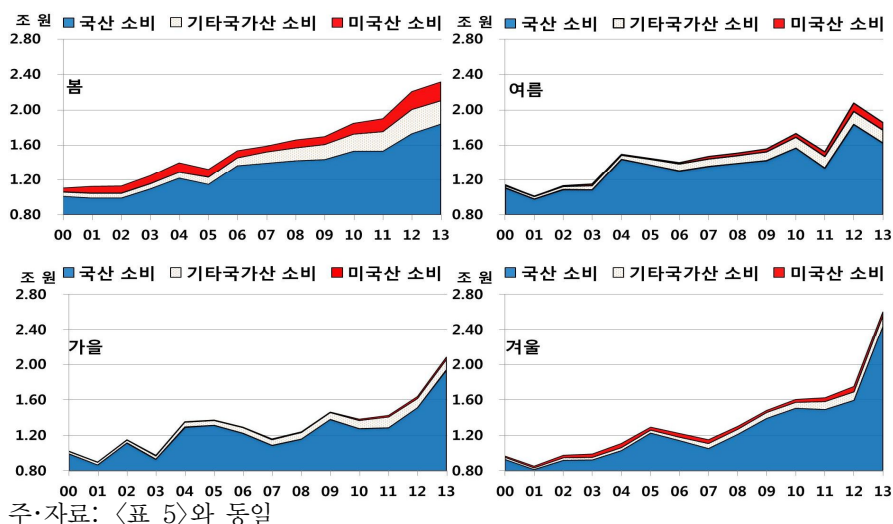
자료: GTIS-GTA, 통계청, 서울시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은행

“
미국산 신선과일 수입
증가는 국내
소비패턴과 생산구조
변화에 영향
”

□ 봄·여름철 미국산 과일수입은 증가했으나, 국산 과일의 생산 및 수요도 증가하여 미국산의 연평균 국내시장점유율은 정체

- 2013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신선과일의 국내시장점유율은 4.2%로 2011년(4.1%)과 비슷하며, 2012년보다는 0.8%p 하락
- 미국산 신선과일 국내시장점유율: 4.1%('11) → 5.0%('12) → 4.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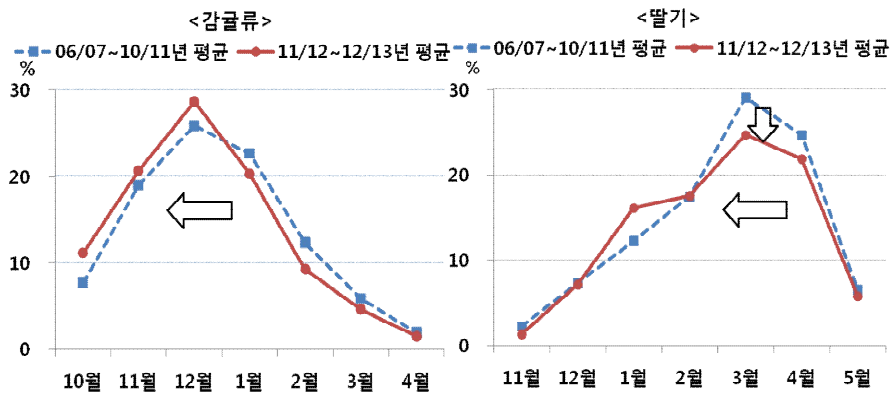
그림 7. 계절별 국내 신선 과일류 소비 동향



□ FTA 발효 후 미국산 과일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소비 또한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음

- 2013년 국내산 과일의 소비규모는 2011년 대비 38.8% 확대
- 그러나 미국산 신선과일 수입 증가는 국내 소비패턴과 과일·과채 생산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침
 - 미국산 과일(오렌지) 수입시기와 일부 국산 과일·채소(감귤, 딸기 등)의 출하시기가 겹침에 따라 국내 농가는 과일·채소의 품종 선정과 출하시기 등의 생산구조 변화를 시도
 - ※ 미국산 오렌지와는 경합이 우려되는 감귤류의 경우, FTA 투용자사업의 일환으로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활용하고, 품질 제고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기 위해 재배품종을 다양화하는 추세
 - ※ 감귤, 딸기 등의 출하기가 미국산 오렌지 수입시기와 일정부분 겹쳐있어 해당 품목의 출하시기가 앞당겨지거나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 8. 국산 감귤류와 딸기의 월별 출하비중 추이



주: 감귤류와 딸기의 월별 출하비중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실적을 기초로 작성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2. 미국산 축산물 수입과 파급효과

□ 한·미 FTA 발효 후 이행 2년차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 대비 12.0% 감소

- 미국산 수입액이 감소한 품목은 돼지고기(41.4%), 닭고기(46.1%), 쇠고기(8.0%), 조제분유(34.5%), 칠면조고기(28.8%) 등
- 반면 치즈(51.3%), 탈지분유(583.4%), 유장(27.1%), 기타축산조제품(8.0%), 난백(20.0%), 꿀(78.0%) 등은 발효 전 대비 증가

표 7. 미국산 주요 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 %

구분	발효 전 (11.3~12.2) (A)	발효 후 이행		증감율	
		1년차 (12.3~13.2) (B)	2년차 (13.3~14.2) (C)	이행 2년차/ 발효 전 (C/A)	이행 2년차/ 이행 1년차 (C/B)
쇠고기	649	538	597	-8.0	11.1
돼지고기	528	386	310	-41.4	-19.8
치즈	138	146	209	51.3	42.8
닭고기	133	83	72	-46.1	-13.8
탈지분유	4	6	26	583.4	322.3
유장	17	24	22	27.1	-11.4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림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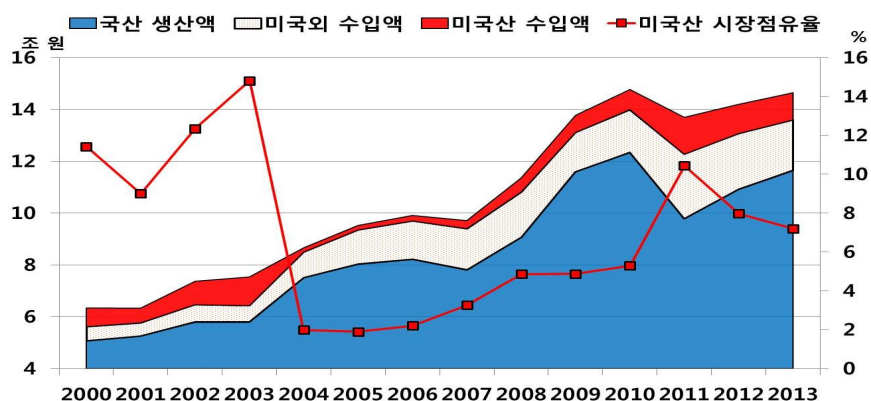
“
 FTA 이행 2년차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발효 전보다
 감소했으며,
 미국산 육류의
 국내시장점유율도 하락
 ”

“
국내 쇠고기 생산량
증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수입비중
모두 감소
”

□ 2010년 구제역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던 미국산 육류 시장점유율은 FTA 발효 후 하락 추세

- 미국산 육류의 국내시장점유율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
개되면서 점차 상승했고, 2010년 말 국내 구제역(FMD) 발생으로
2011년 크게 상승
- 그러나 한·미 FTA 발효 후 관세 감축에도 불구하고 국내 축산 생산 증가,
수입육 재고 증가, 미국 내 광우병(BSE) 발생 등으로 수입량 감소
- 미국산 육류 수입량 감소로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산 육류의
시장점유율 하락
※ 미국산 육류 시장점유율: 10.4%(' 11) → 8.0(' 12) → 7.2(' 13)

그림 9. 미국산 축산물(육류)의 국내시장점유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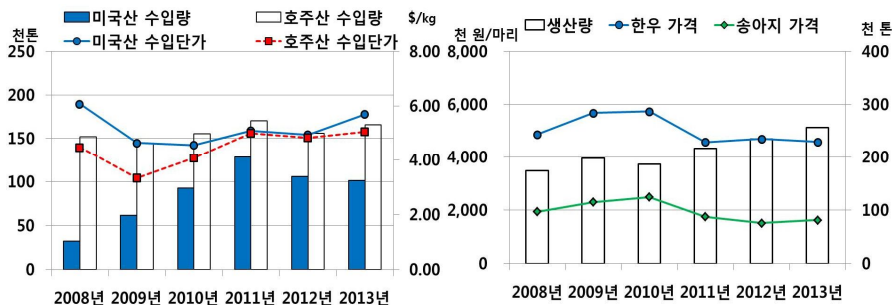
자료: GTIS-GTA, 통계청, KREI 농업전망 2013

□ 미국내 생산 감소와 국내산 공급 증가로 FTA 이행 2년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수입비중 모두 감소

- 미국 내 쇠고기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과 수입비중이 모두 감소
- 한·미 FTA 이행 2년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발효 전 대비
20.4% 감소한 10만 2천 톤(수입액은 8.0% 감소)
※ 미국산 수입단가: 5.08\$/kg(' 11) → 4.94(' 12) → 5.70(' 13)
※ 호주산 수입단가: 4.99\$/kg(' 11) → 4.83(' 12) → 5.05(' 13)
※ 미국산 수입비중: 37.3%(' 11) → 35.4(' 12) → 33.7(' 13)
※ 호주산 수입비중: 49.4%(' 11) → 52.1(' 12) → 55.1(' 13)

- 국내 쇠고기 생산량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은 하락했고 쇠고기 수입도 감소하여 국산 쇠고기 자급률은 상승
 - 도매가격: 458만 원/600kg(' 11) → 470(' 12) → 459(' 13)
 - 자급률: 42.8%(' 11) → 48.0(' 12) → 50.2(' 13)

그림 10. 쇠고기의 국가별 수입량/단가와 국내산 생산/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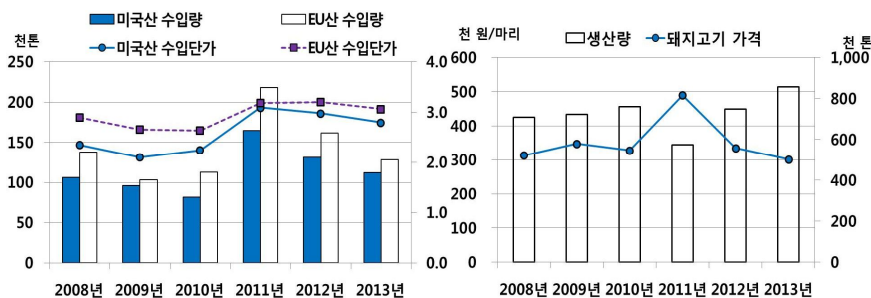


자료: GTIS-GTA,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농협중앙회, KREI 농업전망 2014

□ FTA 발효 후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로 미국산 수입 감소

- FTA 발효와 수입단가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로 돼지고기 수입은 감소했고 가격도 하락
 - 구제역 발생(' 10년 말)으로 ' 11~ ' 12년 할당관세 수입 크게 증가
 - 할당관세 수입의 기저효과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감소하였으나 기타국산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해 미국산 수입비중은 증가
 - 한·미 FTA 이행 2년차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발효 전 대비 35.0% 감소한 10만 9천 톤(수입액은 46.4% 감소)
- ※ 미국산 수입비중: 31.4%(' 11) → 32.6(' 12) → 34.8(' 13)
- ※ EU산 수입비중: 41.4%(' 11) → 39.9(' 12) → 39.6(' 13)
- ※ 도매가격: 490천 원/110kg(' 11) → 335(' 12) → 301(' 13)

그림 11. 돼지고기의 국가별 수입량/단가와 국내산 생산/가격 동향



자료: GTIS-GTA,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농협중앙회, KREI 농업전망 2014

“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 증가로
미국산 수입은
감소했으나 수입비중은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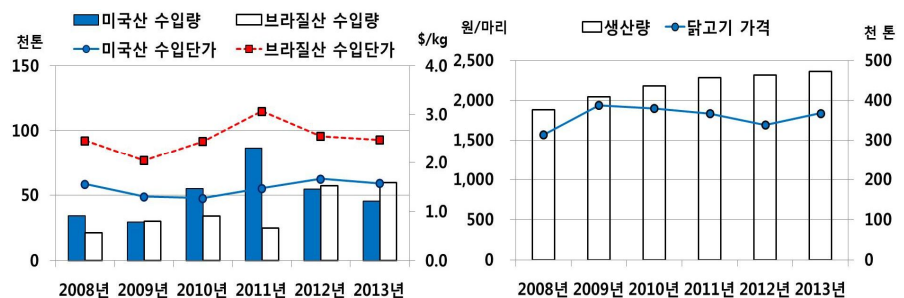
“
국내 닭고기 생산
증가와 브라질산 수입
증가로 미국산 수입량
및 수입비중 감소
”

“
미국산 유제품 수입
증가했으나 국내시장은
쿼터제 운영으로
수입증가 영향은
제한적
”

□ 가격경쟁력이 높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증가로 미국산 수입 감소

- FTA 이행에 따른 관세 감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닭고기는 브라질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미국산 수입비중이 크게 감소
 - 국내에서 대부분 정육 형태로 수입·소비되는 브라질산 닭고기가 미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 우위
 - FTA 이행 2년차 미국산 수입량(4만 6천 톤)은 발효 전 대비 46.7% 감소
 - ※ 미국산 수입비중: 66.1%(' 11) → 41.8(' 12) → 35.8(' 13)
 - ※ 브라질산 수입비중: 19.0%(' 11) → 43.7(' 12) → 46.9(' 13)

그림 12. 닭고기의 국가별 수입량/단가와 국내산 생산/가격 동향



자료: GTIS-GTA,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KREI 농업전망 2014

- 국내산 닭고기는 통닭 위주로 소비되기 때문에 정육 형태(닭강정 등)로 소비되는 수입 닭고기와 대체 관계가 크지 않음

□ TRQ 증량 및 관세감축으로 인한 수입전환효과로 미국산 유제품 수입과 수입비중 모두 증가

- 미국산 유제품은 EU, 호주, 뉴질랜드산과 경합관계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TRQ 증량 및 관세감축 폭이 커 미국산의 수입비중은 증가
 - FTA 이행 2년차에 수입량이 증가한 유제품은 치즈(51.7%), 유장(18.2%), 탈지분유(551.9%)이며, 감소한 유제품은 유당(15.1%)임
 - 미국산 유제품 중 한·미 FTA 발효 후 수입비중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탈지분유와 치즈
 - ※ 탈지분유 미국산 비중: 2.8%(' 11) → 10.3(' 12) → 30.0(' 13)
 - ※ 치즈 미국산 비중: 42.6%(' 11) → 41.1(' 12) → 50.0(' 13)
- 국내 원유 생산은 시유소비량에 기초하여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어 수입 유제품과 경합관계는 크지 않음

3. 향후 전망과 과제

□ 한·미 FTA 이행 초기 수입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며, 향후 관세인하 폭 확대에 따라 파급영향 가시화될 전망

- 한·미 FTA 이행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아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 효과는 제한적
 - － FTA 이행 초기에는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국내외 경제상황, 미국 및 여타 경쟁국의 작황과 수급여건 등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침
 - － FTA 이행에 앞서 정부와 농업인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제고 대책도 피해 최소화해 기여
- 한·미 FTA 이행이 진전됨에 따라 농축산물 관세인하 폭이 확대되고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 한·미 FTA 이행 1~2년차에는 농축산물 관세인하 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축산부문은 2010년 말 국내 구제역 및 AI 발생과 2012년 초 미국의 BSE 발생으로 미국산 축산물 수입 증가의 파급영향은 제한적이었음
 - － 과수부문도 FTA 이행기간 미국산 과일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국내 수요도 함께 증가하여 과수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았음
 - － 초기 관세인하 폭이 컸던 미국산 과일의 수입증가 추세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지만, 향후 국내 과일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수입과일 증가에 따른 과수농가의 직간접적인 피해도 예상된다¹²⁾

□ FTA 대응 농가 경영안정 요구 증대 및 소득안정망 구축

- 한·미 FTA를 포함한 다수의 FTA가 동시에 이행되면서 농축산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소득안정망 구축 요구 증가

“
FTA 이행 초기에 수입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나, 향후
관세인하 폭 확대로
파급영향 가시화될
전망
”

12) 또한, 현재 동식물 검역(SPS) 조치로 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에 대한 FTA 체결국들의 수입허용 요청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국내 위협평가절차의 고도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검역장벽이 해소되는 상황에 대비한 정책수단도 강구해야 함

“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차별화
촉진, 식품안전성 강화,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활용도 제고 필요
”

- FTA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FTA 이행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소득안정장치 필요

□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산 농산물 시장차별화 강화

- FTA 대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체감도를 증진하고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정책수혜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수장·보완 체계 구축 필요
 - FTA 국내보완대책의 시행기간(2008~17)이 절반 이상 경과한 만큼 생산·유통·소비 현장의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FTA 대책의 취지에 적합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보완 추진 필요¹³⁾
- 시장차별화 촉진과 식품안전성 강화를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 FTA 관세감축이 진행되더라도 시장차별화와 수요증진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음
 - 원산지표시제 강화 및 이력추적제, HACCP 확대 등 국산 농산물의 차별화와 함께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국산 농식품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필요

□ FTA를 활용한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활용도 제고

- 이행 초기의 대미 수출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공농식품과 신선농산물을 분리하여 차별화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농업소득과 직접 연계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수출조직·수출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수출물류기능 강화와 해외시장 유통망 구축 등 필요
- 원산지증명, 검역, 검사 등의 통관절차, 수출 대상국의 식품안전 관련 국내법 적용 등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요구

13)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오프라인 정책포럼을 활성화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농업인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FTA 보완대책 수립 및 개선·보완 시 반영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부표 1. 한·미 FTA 이행 2년차 주요 농축산물 수입 변화

구분	미국산 수입액(백만 \$)					미국산 수입량(천 톤)					FTA 수입활용도	
	발효 전	이행 1년차	이행 2년차	발효 전 대비	이행 1년차 대비	발효 전	이행 1년차	이행 2년차	발효 전 대비	이행 1년차 대비	2012년	2013년
	(A)	(B)	(C)	(C/A)	(C/B)	(D)	(E)	(F)	(F/D)	(F/E)		
총합계	7,507	6,527	5,989	-20.2	-8.2	-	-	-	-	-	49.9	73.9
쇠고기	649	538	597	-8.0	11.1	128	107	102	-20.4	-5.0	77.2	99.3
혼합조제식료품	335	428	429	28.0	0.4	26	72	23	-10.2	-67.7	51.6	76.1
밀	551	722	401	-27.3	-44.5	1,442	2,224	1,091	-24.4	-51.0	55.8	99.6
대두	259	404	334	29.0	-17.3	424	627	517	21.9	-17.4	1.7	3.1
돼지고기	528	386	310	-41.4	-19.8	167	133	109	-35.0	-17.9	73.4	99.6
사료용근채류	236	291	299	26.4	2.4	777	849	841	8.2	-1.0	31.3	29.7
오렌지	189	230	235	24.2	2.0	151	165	160	6.0	-3.2	72.7	89.4
옥수수	1,940	613	213	-89.0	-65.2	5,883	1,874	820	-86.1	-56.2	1.5	42.7
치즈	138	146	209	51.3	42.8	31	33	47	51.7	43.5	76.0	97.7
판지	36	203	198	451.4	-2.5	138	834	823	495.1	-1.2	-	-
면	391	152	197	-49.7	29.1	102	61	93	-9.2	51.1	9.2	5.0
아몬드	88	140	168	92.2	20.3	16	24	22	37.9	-7.5	90.1	100.0
팥	216	176	164	-24.2	-7.1	276	252	228	-17.5	-9.5	-	-
양조박	135	139	159	17.3	14.5	456	424	454	-0.4	7.1	67.8	96.6
쌀	122	58	127	4.4	119.9	148	79	178	20.1	125.9	-	-
침엽수원목	152	113	120	-20.7	6.9	447	368	275	-38.4	-25.3	13.5	12.5
감자	83	99	113	36.3	14.8	79	88	100	26.4	13.5	82.1	86.9
호두	87	113	104	20.5	-7.5	10	11	10	2.3	-13.3	78.2	98.4
체리	48	84	91	87.9	8.3	6	10	10	74.7	-3.8	98.9	99.7
기타과실	71	92	88	24.2	-4.3	18	23	23	28.0	1.3	77.0	90.7
닭고기	133	83	72	-46.1	-13.8	86	51	46	-46.7	-8.7	73.4	98.7
소원피	5	42	65	1,108.9	55.0	2	14	17	608.6	23.5	55.2	77.1
초코렛	45	51	53	16.7	2.9	8	8	9	12.6	7.8	74.6	93.3
포도	37	47	51	39.0	9.9	15	18	19	25.8	6.7	93.2	98.1
대두유	20	16	43	115.4	166.0	15	13	36	147.3	175.9	95.4	8.7
커피	28	41	39	37.9	-3.9	2	3	3	47.8	9.8	73.0	86.7
기타코코아조제품	33	41	36	8.3	-13.0	6	7	5	-2.9	-22.3	81.4	91.0
기타 축산조제품	31	23	34	8.0	44.2	7	6	8	24.4	30.9	66.9	99.3
기타베이커리제품	24	32	31	30.3	-3.1	7	8	8	8.5	-4.2	70.6	90.0
개 사료	28	32	31	11.3	-2.5	13	14	13	-1.8	-8.5	82.4	96.9
대두박	76	94	31	-59.6	-67.0	179	146	54	-70.0	-63.2	49.0	18.6
기타유지 가공품	31	32	31	1.1	-3.8	1	0	0	-42.2	-16.9	46.2	68.8
앞담배	17	33	30	78.6	-8.6	2	4	3	55.3	-16.6	34.6	92.9
양장	28	35	28	-0.7	-20.9	9	9	8	-10.0	-14.7	71.2	99.7
배합사료	16	25	27	69.2	7.7	47	72	101	112.9	39.9	84.9	94.4
토마토	19	24	27	37.8	11.8	17	22	25	44.3	12.7	66.5	78.5

주1) 주요 농축산물 수입 변화는 FTA 이행 2년차 수입액 순으로 정리함

주2) FTA 수입활용도가 제시되지 않은 품목은 양허제외 또는 기존 무관세 품목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표 2. 한·미 FTA 이행 2년차 주요 농축산물 수출 변화

구분	대미 수출액(천 \$)					대미 수출량(톤)					FTA 수출활용도	
	발효 전	이행 1년차	이행 2년차	발효 전 대비	이행 1년차 대비	발효 전	이행 1년차	이행 2년차	발효 전 대비	이행 1년차 대비	2012년	2013년
	(A)	(B)	(C)	(C/A)	(C/B)	(D)	(E)	(F)	(F/D)	(F/E)		
총합계	435,173	482,189	528,153	21.4	9.5	-	-	-	-	-	34.5	46.1
결련	29,487	40,460	53,102	80.1	31.2	1,582	2,187	2,850	80.2	30.3	-	-
혼합조제식료품	64,189	51,332	47,310	-26.3	-7.8	3,705	8,556	7,389	99.4	-13.6	28.6	39.4
기타음료	31,901	44,124	46,628	46.2	5.7	39,413	55,310	58,519	48.5	5.8	43.6	58.2
배	26,604	23,995	26,821	0.8	11.8	9,221	7,231	9,457	2.6	30.8	37.2	39.4
라면	20,466	22,880	26,121	27.6	14.2	6,224	6,403	7,179	15.3	12.1	40.5	72.2
비스킷	19,742	19,253	23,760	20.4	23.4	4,134	3,925	4,334	4.8	10.4	44.9	61.2
젤라틴	8,835	19,218	21,352	141.7	11.1	1,307	1,809	1,521	16.4	-15.9	76.9	98.5
기타파스타	11,186	13,046	13,360	19.4	2.4	4,168	4,921	4,931	18.3	0.2	44.8	48.4
기타소오스제품	9,742	10,336	11,784	21.0	14.0	2,839	2,862	3,397	19.6	18.7	45.4	73.5
곡류조제품	12,423	12,202	11,230	-9.6	-8.0	3,185	3,174	3,068	-3.7	-3.3	43.8	70.6
국수	12,392	12,274	10,647	-14.1	-13.3	6,403	6,628	6,025	-5.9	-9.1	35.4	47.2
고추장	6,632	8,441	9,866	48.8	16.9	3,525	3,954	4,487	27.3	13.5	23.9	48.9
소주	9,102	8,698	9,585	5.3	10.2	5,859	5,670	6,025	2.8	6.3	29.6	37.7
빵	4,889	6,342	8,810	80.2	38.9	1,188	1,513	1,919	61.5	26.8	19.5	22.2
베이커리반죽	5,758	7,196	8,740	51.8	21.5	2,333	2,498	2,841	21.8	13.8	0.8	0.8
기타베이커리제품	5,810	6,666	8,184	40.9	22.8	1,958	2,180	2,372	21.1	8.8	32.4	38.9
커피조제품	7,168	7,043	7,417	3.5	5.3	1,665	1,518	1,661	-0.3	9.4	35.0	66.3
기타조제식료품	6,654	7,175	7,228	8.6	0.7	2,398	2,843	3,109	29.6	9.4	36.0	36.5
기타채소	5,571	7,562	6,877	23.5	-9.1	1,496	1,668	1,609	7.6	-3.5	29.4	28.7
채소종자	5,444	11,751	6,625	21.7	-43.6	22	82	27	19.0	-67.2	20.8	29.1
홍삼정	4,879	4,332	6,168	26.4	42.4	91	99	90	-1.3	-8.9	36.7	44.6
인스턴트면	4,094	6,354	5,967	45.7	-6.1	1,614	3,126	2,996	85.6	-4.2	14.5	34.3
기타 가구	422	3,871	5,894	1,296.7	52.3	106	697	1,117	956.8	60.1	36.8	48.8
아이스크림	4,370	5,516	5,692	30.2	3.2	1,531	1,783	1,855	21.1	4.0	29.9	12.0
팽이버섯	4,630	5,037	5,071	9.5	0.7	2,672	3,007	2,989	11.8	-0.6	58.4	80.1
김치	2,979	3,943	5,034	69.0	27.7	850	1,037	1,253	47.5	20.8	21.0	56.3
단일과실조제품	4,825	3,890	4,939	2.4	26.9	5,854	4,499	6,011	2.7	33.6	13.9	22.7
밤	2,278	2,243	4,366	91.7	94.7	700	510	1,350	92.9	165.0	80.7	41.8
간장	3,298	3,736	4,135	25.4	10.7	3,930	3,804	3,898	-0.8	2.5	53.1	59.3
밀	4,357	4,519	4,043	-7.2	-10.5	3,911	4,972	4,557	16.5	-8.3	17.1	48.2
기타석제품	146	241	3,979	2,616.8	1,548.6	79	52	2,192	2,684.9	4,130.8	35.1	94.9
혼합조미료	4,032	3,630	3,790	-6.0	4.4	919	857	904	-1.6	5.5	15.8	52.8
기타당	3,003	2,969	3,703	23.3	24.7	822	916	1,684	104.8	83.8	59.0	91.4
발효유	3,272	3,639	3,350	2.4	-7.9	3,645	4,010	3,772	3.5	-5.9	78.8	85.7
기타식물성잡질물	3,783	2,453	3,310	-12.5	35.0	332	229	299	-10.1	30.4	0.0	0.0
홍삼조제품	2,714	3,490	3,300	21.6	-5.5	217	181	230	6.4	27.0	43.5	49.7

주 1) 주요 농축산물 수출 변화는 FTA 이행 2년차 수출액 순으로 정리함

2) FTA 수출활용도가 제시되지 않은 품목(권련)은 원산지증명을 통한 특혜수출 실적이 없는 품목임

자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년

-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
(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 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정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운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중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견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3. 13

발 행 2014. 3. 14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박성재,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한석호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문원사

02-739-3911 munwonsa@hanmail.net

ISBN: 978-89-6013-584-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